



PLS 9개월… 검사인력 태부족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농약 안전성 검사 느는데 센터 4곳중 1곳은 인력 전무
농업기술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설·충원 추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올해 1월부터 본격화되면서 관련 업무는 늘어났지만 제주지역 검사 인력은 태부족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 안전성 기준 강화와 검사 확대가 실시됐다. 농약 잔류성분 분석 검사 항목도 320종에서 340종으로 증가했다.

특히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시 퇴·액비화 기준 설정 및 검사 의무화로 업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액비 부속도 기준 설정 및 검사 의무화 시행은 지난 3월 25일부터 진행됐으며,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는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화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할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도

내 검사 여력이 안돼 도의 분석 기관에 의뢰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서부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각각 지도사 1명·공무직 2명이 배치돼 토양검정과 액비 부속도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도사 1명이 맡은 업무량이 토양검정 연간 최대 4000점, 액비 부속도 검사 연간 최대 912건에 이르는 등 상당하다는 점이다. 또 센터별 검정 숙련도와 능력에 따라 검사 분석이 달라 센터간 결과 비교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이마저도 전무해 가장 열악하다.

이에 농기원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설 등을 포함한 2020~202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농기원은 현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소재한 동부센터를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로 활용하고, 기존 동부센터를 구좌읍 세화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3곳 센터의 분석 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며, 본격 운영은 오는 2021년 1월로 내다보고 있다. 필요인력은 총 17명(지도관 1명·농촌지도사 10명·공무직 6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7명은 내부 인력으로 조정 가능하며 총 10명(지도관 1명·지도사 9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농기원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를 통해 농산물 안전 확보는 물론, 출하전 분석 지원을 통한 농업인 보호와 신뢰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조직 신설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573돌 한글날 경축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노래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어 보존이 곧 제주 지키는 일”

573돌 한글날 경축행사 열려

제573돌 한글날 경축행사가 9일 오전 10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기념영상, 한글발원 유공자 포상, 축하발송, 축하공연, 한글날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 한글의 우수성과 제주어보전을 위한 도민들의 노력과 다양한 활동 등을 소개하는 기념영상과 제

주도내 초등학교 어린이들로 구성된 연합중창단 ‘노래하는 아이들’이 제주어 창작 노래로 축하공연을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한글발원에 기여한 신촌초등학교 강미숙 교장,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고애경 교사, (사)제주어보존회 강은아씨가 제주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사)제주특별자치도한글서예사랑모임(이사장 현병찬) 주최로 제18회 한글서예대전에서 한글오펜상을 수상한 설진숙씨가 제주

도지사 상장을 받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한글은 민족의 숨과 일이 담긴 그릇이자 민족 고유의 문화를 쌓아 올린 기둥”이라며 “한글의 보물창고이자 제주인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제주어를 보존하는 일이 곧 제주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어는 아래아(ㅏ) 등 한글 창제 당시의 고유한 형태가 가장 많이 남아 있어 고어(古語)의 보물창고로 불린다”며 “제주도는 제주어의 체계적인 보전과 육성을 위해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윤기자

“청소년활동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강철남 의원, 조례안 발의

도내 청소년 단체 지원과 청소년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청소년육성 시스템이 담긴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읍·사진)은 도내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의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조례안에는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복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내년 10개 사업·53억 투입

대규모의 국비가 확보돼 제주지역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3억9900만원(국비 43억1900만원·지방비 10억8000만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8억6000만원보다 25억 3900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계속사업 증가와 신규사업 확보 덕분이다.

신규사업은 ▷북리향 월파방지시설(2억5000만원) ▷추자도 응뚴범진입로 정비(3억원) ▷하우목동향 월파시설(3억7500만원) ▷우도 해수욕장 탐의실 건축(5억원) 등 6개 사업이다. 예산은 총 22억6000만원이 투자된다.

계속사업에는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12억9800만원) ▷파파도 상동항 정비(11억1400만원) ▷마라도 자리덕포구 정비(4억3800만원) ▷마라도 복지회관 정비(3억4300만원) 등 4개 사업에 31억9300만원이 투입된다.

이소진기자

갈매기·쥐 차단시설도 없고… 수산물위판장 위생여건 미흡

제주지역 수산물 위판장 10곳 중 9곳이 갈매기·생쥐를 차단하는 그물망이나 관련 시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원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2개의 위판

장 중 65%에 달하는 144개소는 냉동, 냉장, 저빙, 오페수 등의 위생시설을 단 1개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방형 위판장의 경우 157개소 중 8개소를 제외한 149개소는 갈매기 등의 조류나 쥐와 같은 설치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물망이나 관련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산지위판장 10곳 중 저온·위생시설이 없는 곳이 3곳, 방조·방서 시설이 없는 곳은 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부미현기자

차고지증명제 이후 자동차등록 감소세 ‘뚜렷’

7-9월 증가율 작년比 82%↓도 “도 전역 시행 후 효과”

올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제주도내 등록 자동차 대수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 대수는 58만5258대로, 이 가운데 기업민원차량(역외세원차량) 19만 778대를 제외하면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38만7470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만2844대 보다 1.2%(4626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차량기준으로 승용차가 28만 9532대로 전체의 74.7%를 차지하고 있고, 화물차 7만9802대(20.6%), 승

합차 1만6801대(4.4%), 특수차 1335대(0.3%) 순이다. 용도별로는 자가용 34만4140대로 전체의 88.8%, 영업용 4만920대(10.6%), 관용 2410대(0.6%) 순이었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가 28만2480대(72.9%), 서귀포시는 10만4990대(27.1%)로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17만7490대가 더 많이 등록돼 있다.

2013년부터 도내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만485대(3.9%) 증가한데 비해 2014년은 1만9798대(7.0%), 2015년은 2만4688대(8.2%), 2016년은 2만5989대(8.0%)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7년부터 1만8756대(5.3%), 2018년 1만3397대(3.6%), 2019년 9월 말까지 3811대(1.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증명차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시 동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후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1일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9월 말까지 도내 실제 운행 차량 증가 대수는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한 결과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실제 차량 증가 대수는 월 평균 1275대였으나 2019년 같은 기간 월 평균 226대가 증가해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등이 영향으로 자동차 증가대수가 월평균 1049대(82% 감소)로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분석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12회 애월읍민종합체육대회 개최

애월읍민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다져 읍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애월읍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일 시 2019년 10월 12일(토)~ 10월 13일(일) / 2일간

개회식 2019. 10. 12 (토) 09:00

장 소 애월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등(3개소)

주 최 애월읍체육회

주 관 애월읍체육회, 애월읍연합청년회

경종목 7개 종목

[축구, 씨름, 줄다리기, 투호, 윷놀이, 게이트볼, 제주(400m)]

문 의 064) 728-8811, 8815

애월읍체육회장 부 태 진

제25회 함덕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옛 추억을 되살리고 동문들의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신명나는 축제의 장인 **제25회 함덕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9년 10월 13일(일) 10:00 장소: 모교운동장 (우천시 체육관)

연락처

회 장 한동호 010-4149-1589
집행위원장 함경돈 010-3994-1591
사무국 장 함우혁 010-3639-8262

함덕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한 동 호
 명예대회장(함덕초등학교장) 홍 상 국

